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보 도 참 고 자 료			
배 포 일	2020. 3. 11.(수) / (총 17매)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팀	과 장	박 혜 경	전 화	043-719-9050
	담 당 자	이 동 우		043-719-906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3월 11일 0시]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3월 11일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수는 7,755명이며, 이 중 288명이 격리해제 되었다고 밝혔다.

<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 (3.11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구분	총계	확진환자현황				검사현황		
		계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계	검사 중	결과 음성
3. 10(화) 0시 기준	210,144	7,513	247	7,212	54	202,631	18,452	184,179
3. 11(수) 0시 기준	222,395	7,755	288	7,407	60	214,640	18,540	196,100
변동	+12,251	+242	+41	+195	+6	+12,009	+88	+11,921

○ 지역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지역별 확진자 현황 (3.11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격리중	7,407	156	76	5,649	22	12	16	23	10	149	22	24	111	5	3	1,052	74	3
격리해제	288	37	21	102	3	3	2	2	0	25	6	3	1	2	1	69	10	1
사망	60	0	1	43	0	0	0	0	0	1	1	0	0	0	0	14	0	0
합계 (전일대비)	7,755 (242)	193 (52)	98 (2)	5,794 (131)	25 (12)	15 (-)	18 (-)	25 (1)	10 (2)	175 (12)	29 (1)	27 (2)	112 (8)	7 (-)	4 (-)	1,135 (18)	84 (1)	4 (-)

※ 3월 10일 0시부터 3월 11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기초조사서 접수, 1차 분류 등이 된 사례 기준임
초기 신고 이후 소관지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전 발표된 통계수치와 상이할 수 있음

- 전국적으로 약 80.1%는 집단발생과의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기타 산발적 발생사례 또는 조사·분류중인 사례는 약 19.9%이다.

지역	누계	주요 집단발생 사례 (접촉자, 기존해외유입관련 등 포함)		기타*	신규
		명 (%)	세부 내용		
서울	193	149 (77.2%)	구로구 콜센터 관련(53명), 은평성모병원 관련(14명), 성동구 아파트 관련(13명), 종로구 관련(10명), 중구 패션회사 관련(7명), 신천지 관련(5명), 동안교회 관련(4명) 등	44 (22.8%)	52
부산	98	70 (71.4%)	온천교회 관련(34명), 신천지 관련(11명), 수영구 유치원 관련(6명), 해운대구 성당 관련(6명), 부산진구 학원 관련(4명), 대남병원 관련(1명) 등	28 (28.6%)	2
대구	5,794	4,755 (82.1%)	신천지 관련(4,096명), 확진자 접촉자(657명), 대남병원 관련(2명)	1,039 (17.9%)	131
인천	25	20 (80.0%)	구로구 콜센터 관련(14명), 신천지 관련(2명), 확진자 접촉자(3명), 기존 해외유입 관련 (1명)	5 (20.0%)	12
광주	15	10 (66.7%)	신천지 관련(9명), 기존 해외유입 관련(1명)	5 (33.3%)	0
대전	18	10 (55.6%)	확진자 접촉자(8명), 신천지 관련(2명)	8 (44.4%)	0
울산	25	16 (64.0%)	신천지 관련(13명), 확진자 접촉자(3명)	9 (36.0%)	1
세종	10	9 (90.0%)	운동시설 관련(8명), 신천지 관련(1명)	1 (10.0%)	2
경기	175	136 (77.7%)	신천지 관련(26명), 수원 생명샘교회 관련(10명), 분당제생병원 관련(13명), 구로구 콜센터 관련(13명), 기존 해외유입 관련(6명) 등	39 (22.3%)	12
강원	29	18 (62.1%)	신천지 관련(15명), 확진자 접촉자(3명)	11 (37.9%)	1
충북	27	25 (92.6%)	신천지 관련(10명), 괴산군 장연면 관련(11명), 확진자 접촉자(4명)	2 (7.4%)	2
충남	112	105 (93.8%)	천안시 등 운동시설 관련(99명), 서산시 연구소 관련(6명)	7 (6.3%)	8
전북	7	4 (57.1%)	확진자 접촉자(2명), 기존 해외유입 관련(1명), 신천지 관련(1명)	3 (42.9%)	0
전남	4	3 (75.0%)	신천지 관련(1명), 기존 해외유입 관련(1명), 확진자 접촉자(1명)	1 (25.0%)	0
경북	1,135	820 (72.2%)	신천지 관련(502명), 청도 대남병원 관련(119명), 봉화 푸른요양원(54명), 성지순례 관련(49명), 칠곡 밀알사랑의집 관련(25명), 경산 서린요양원(21명), 경산 제일실버타운(17명), 경산 참좋은재가센터(15명) 등	315 (27.8%)	18
경남	84	63 (75.0%)	신천지 관련(29명), 거창교회 관련(10명), 거창군 웅양면 관련(8명), 한마음창원병원 관련(7명), 창녕 동전노래방 관련(7명), 부산 온천교회 관련(2명)	21 (25.0%)	1
제주	4	- -		4 (100.0%)	0
합계	7,755	6,213 (80.1%)	신천지 관련 4,723명(60.9%)	1,542 (19.9%)	242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본부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기타는 개별사례, 조사 후 연관성 분류가 진행 중인 사례, 조사 중인 사례 등을 포함

- 서울시 구로구 소재 콜센터 관련 3월 8일부터 현재까지 90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하였으며, 감염경로 및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 직원 77명(서울 51명, 경기 13명, 인천 13명), 접촉자 13명(서울 11명, 인천 2명)(3.11일 오전 기준)
2페이지 표의 환자수는 3.11일 0시전까지 질병관리본부에 보고가 완료된 현황 기준으로 수치상 일부 차이가 있음

- 가족 접촉자를 제외한 확진환자 77명은 현재까지 모두 11층 콜센터에서 근무한 결로 확인되고 있다. 같은 회사지만 다른 층(7~9층)에서 근무 중인 직원 553명에 대해서는 우선 자가격리 조치하고, 검체 검사 등을 실시하여 추가 전파 규모를 확인해 나갈 예정이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집단발생사례 중 집단시설과 관련된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의료기관(20건)에서의 발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뒤를 이어 사회복지시설(8건), 종교시설(7건), 직장(6건), 다중이용시설(4건) 등의 순이었다.
- 이에 따라, 닫힌 공간 내에서 밀접한 접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파 가능성이 증가되는 만큼 이러한 환경을 가진 사업장 등은 코로나19 전파 차단을 위해 근무형태 및 환경 등을 적극 개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우선, 온라인 업무 또는 재택 근무가 가능한 경우엔 이러한 근무 형태를 적극적으로 마련,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 사무실 내에 좌석 간격 등을 조정해 밀집도를 낮추고, 침방울(비말)등에 노출되는 사무공간이나 기자재 표면 등은 깨끗이 자주 닦거나 소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 ‘보건관리자’를 지정하여 손 소독제 비치, 주기적 환경소독과 환기 실시, 1일 2회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확인, 종사자·이용자 등의 방문 및 증상여부 이력 관리 등을 실시할 것도 권고했다.
 - 또한, 유증상자의 경우는 출근 등을 중단토록 하되 이로 인해 종사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도 당부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고위험 사업장 감염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며, 각 사업장 소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세부 유형별 감염관리 지침도 마련하여 배포하도록 할 계획이다.
-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역감염이 발생하는 주요 국가로부터의 코로나19 추가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탈리아와 이란을 검역 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국내 입국 시 유증상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특별입국절차를 거쳐 자가진단 앱 설치 등을

하고 입국 후 증상발현 모니터링 대상이 되며, 필요한 경우
검역소에서 선제격리 후 진단검사*를 받도록 한다.

* 4개 검역소 지역거점 검사센터 활용 (인천공항, 부산, 여수, 제주)

- 또한, 해당 국가 입국자에 관한 정보는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ITS(해외여행력 정보 제공프로그램), 수진자자격조회(건강보험자격)를 통해 의료기관에 제공하여 진료 시 참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한국심리학회(회장 조현섭)와 함께 코로나19
스트레스 극복을 위한 심리상담을 실시(3.9~)하고 있다고 안내하였다.

○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1339콜센터로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민원이 하루 10여건 정도 확인되고 있다.

-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한국심리학회와의 협의를 거쳐 자발적
으로 참여의사를 밝힌 심리상담 전문가 230여명(하루 8명씩 2개 회선)
의 협조를 받아 1339콜센터로 심리상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국
심리학회 상담전화*를 안내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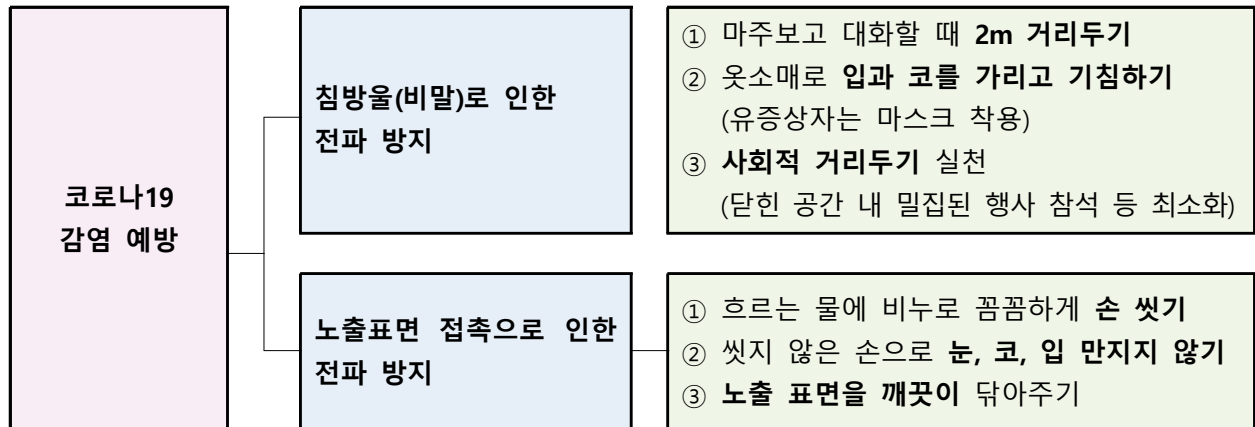
* 한국심리학회 무료 심리상담(평일/주말 09~21시, 070-5067-2619, 070-5067-2819)

※ 별도 배포된 보도참고자료(3.11.) 참조

○ 아울러, 현재 보건복지부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에서
전국적으로 전문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확진자 및 가족은
국가트라우마센터(02-2204-0001~2)로, 자가격리자와 일반국민들은
정신건강복지센터(1577-0199)에 연락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개인위생 수칙 준수 및 ‘사회적 거리두기 (Social Distancing)’를 철저히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전파 양식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 >



- 침방울(비말)로 인한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마주보고 대화할 때 2m 정도의 거리두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하기 등 기본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아울러,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의 접촉 가능성을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당부하면서, 특히 단한 공간에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나 종교행사 등에 대한 방문은 최대한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 또한, 각 기관이나 기업 등에서는 온라인 근무, 재택근무를 적극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 집 안에 머물 때에는 ① 충분한 휴식, ② 적절한 운동 ③ 균형잡힌 식생활, ④ 위생수칙 준수, ⑤ 주기적 환기 실천을 당부했다.
- 노출표면 접촉을 통한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 씻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그리고 생활공간에서 자주 노출되는 가구 등의 표면을 깨끗이 닦기 등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말고 외출을 자제해야 하며,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3~4일간 경과를 관찰하는 것을 권고했다.

○ 또한, 코로나19 증상으로 의료기관 방문 전에는 ① 콜센터 (☎ 1339, ☎지역번호+120) 또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 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 (www.mohw.go.kr, 상단배너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명단보기'), 질병관리본부 누리집 (www.cdc.go.kr, 상단배너 '선별진료소')

- 선별진료소를 방문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기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할 것을 당부했다.

○ 감염을 걱정하는 일반 국민을 위한 병원으로서, 비호흡기질환 진료구역을 호흡기질환 전용 진료구역(외래·입원)과 구분하여 운영하는 「국민안심병원」을 이용해 줄 것도 당부했다.

※ ①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른 의사환자나 조사대상유증상자는 선별진료소
② 단순 경미한 호흡기 증상자는 가까운 의원이나 국민안심병원 호흡기 외래
③ 고혈압·심장질환 등 비호흡기 증상자는 국민안심병원 일반외래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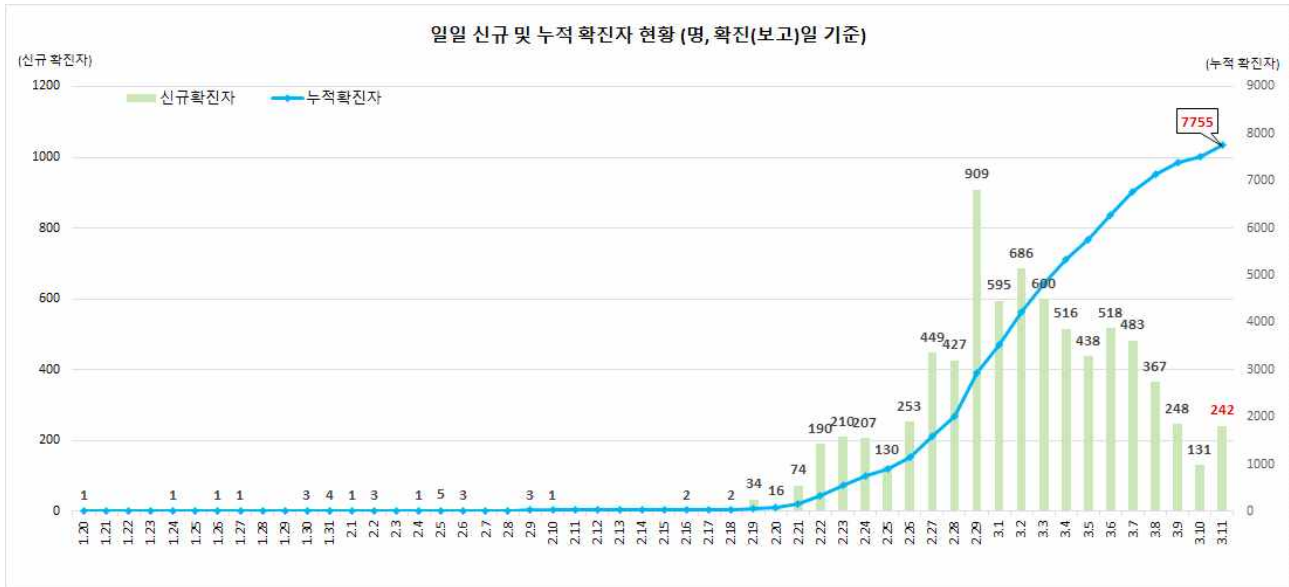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4.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붙임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1 확진자 일별 추세 (3.11일 0시 기준, 7,755명)



※ 2.20일 이전은 해당일별 확진자수, 2.21일 이후는 해당일 오후 2시 브리핑 때 발표되는 전일 오전9시부터 해당일 오전9시까지의 환자 수 증가분, 3.2일은 전일 오전9시부터 해당일 0시까지의 환자 수 증가분, 3.3일부터는 전일 0시부터 해당일 0시까지의 환자수 증가분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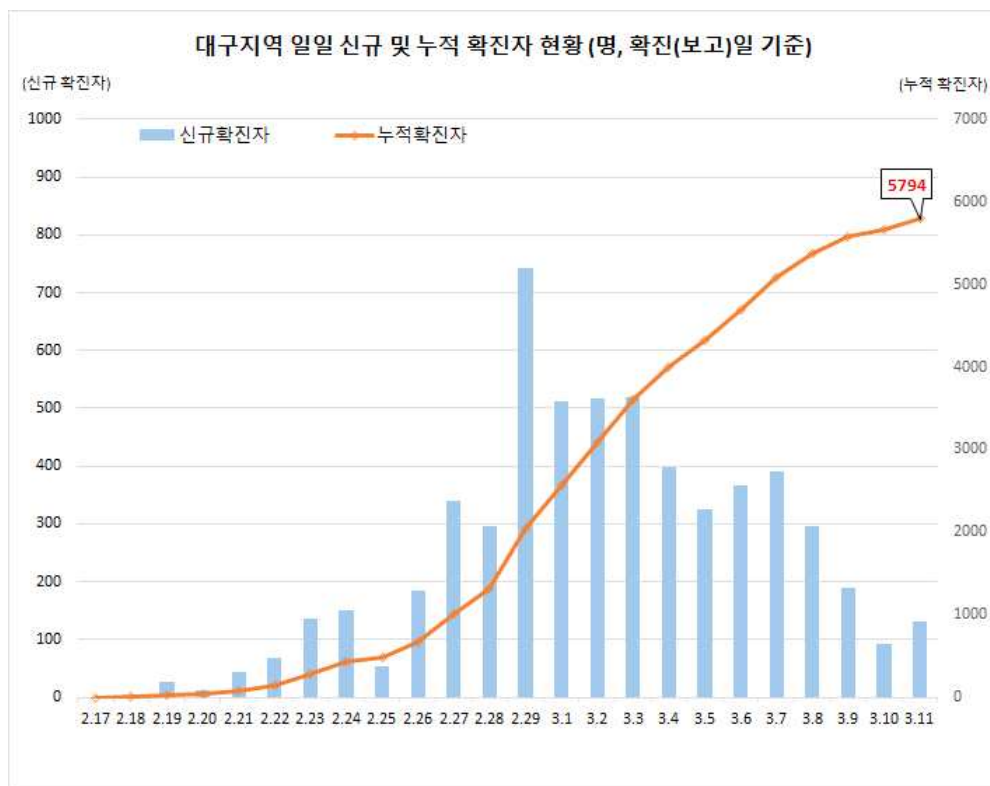
2 확진자 지역별 발생현황 (3.11일 0시 기준, 7,755명)

지역	확진환자수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지역	확진환자수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서울	193	(2.5)	1.98	경기	175	(2.3)	1.32
부산	98	(1.3)	2.87	강원	29	(0.4)	1.88
대구	5,794	(74.7)	237.80	충북	27	(0.3)	1.69
인천	25	(0.3)	0.85	충남	112	(1.4)	5.28
광주	15	(0.2)	1.03	전북	7	(0.1)	0.39
대전	18	(0.2)	1.22	전남	4	(0.1)	0.21
울산	25	(0.3)	2.18	경북	1,135	(14.6)	42.63
세종	10	(0.1)	2.92	경남	84	(1.1)	2.50
				제주	4	(0.1)	0.60
총합계					7,755	(100.0)	14.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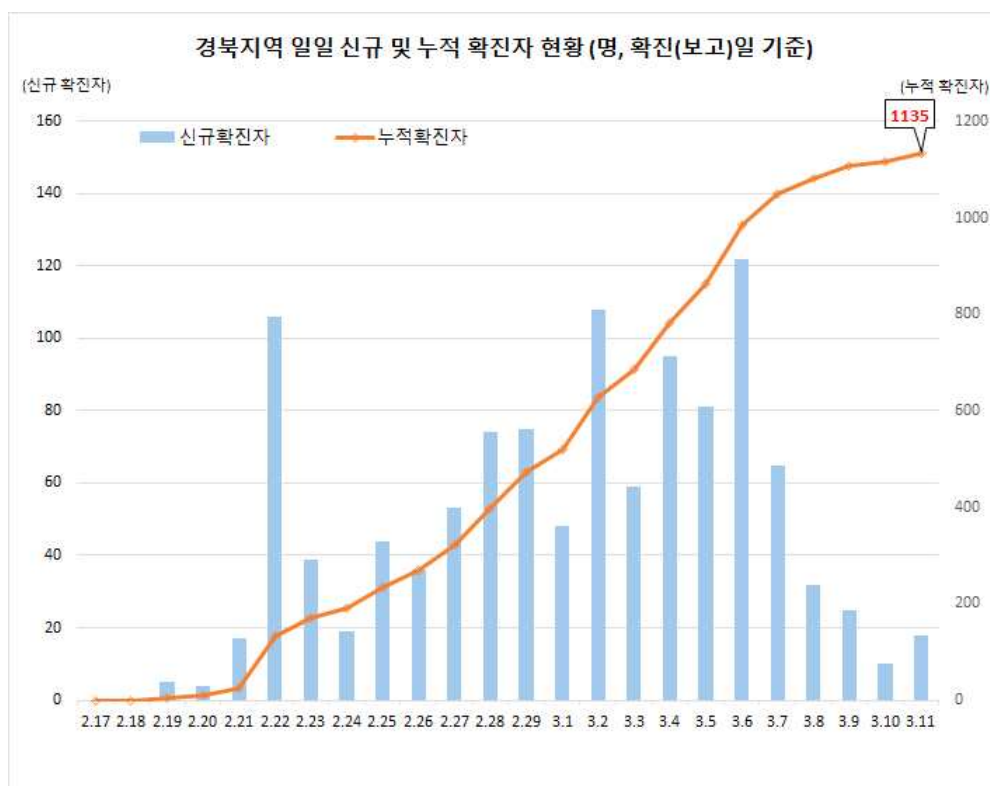
* 지역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대구/경북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대구지역
확진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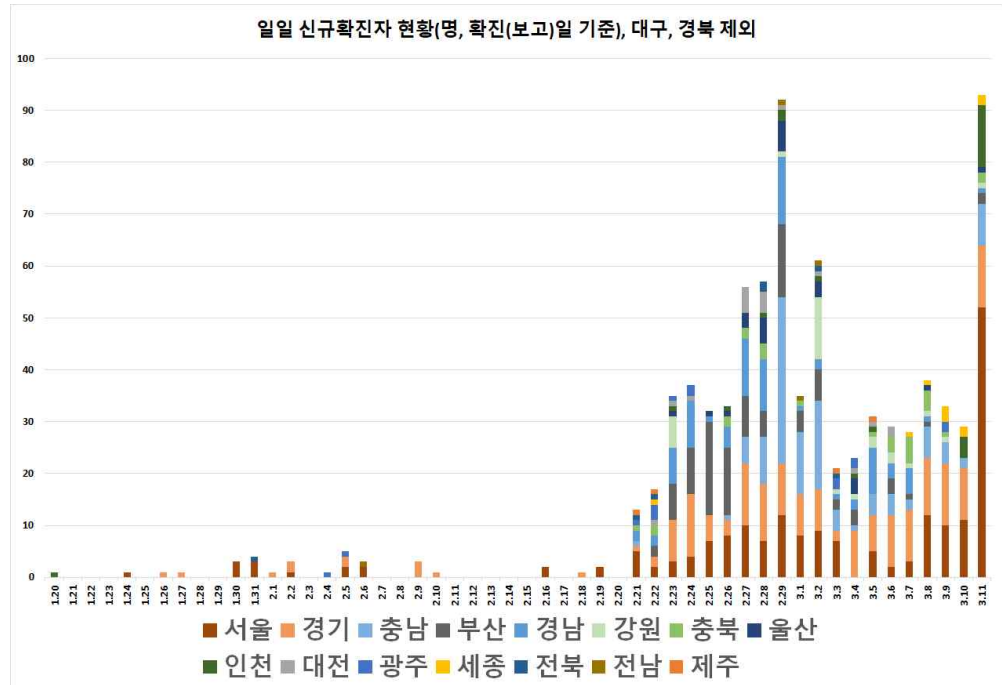


경북지역
확진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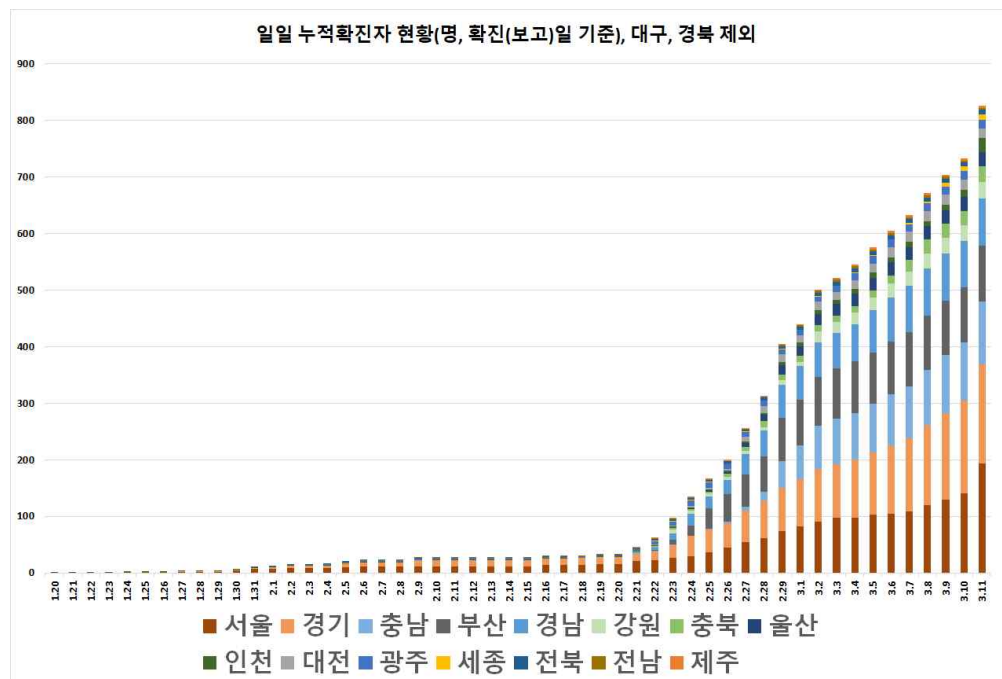


< 대구 경북 지역을 제외한 일별 확진자 현황 >

일별 신규
확진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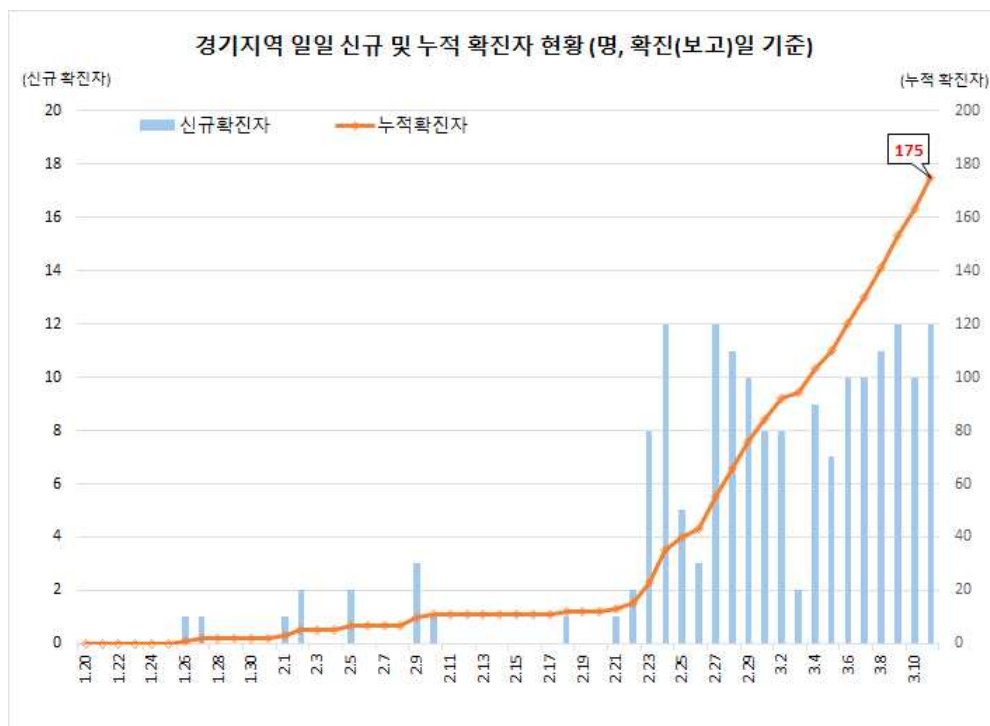


일별 누적
확진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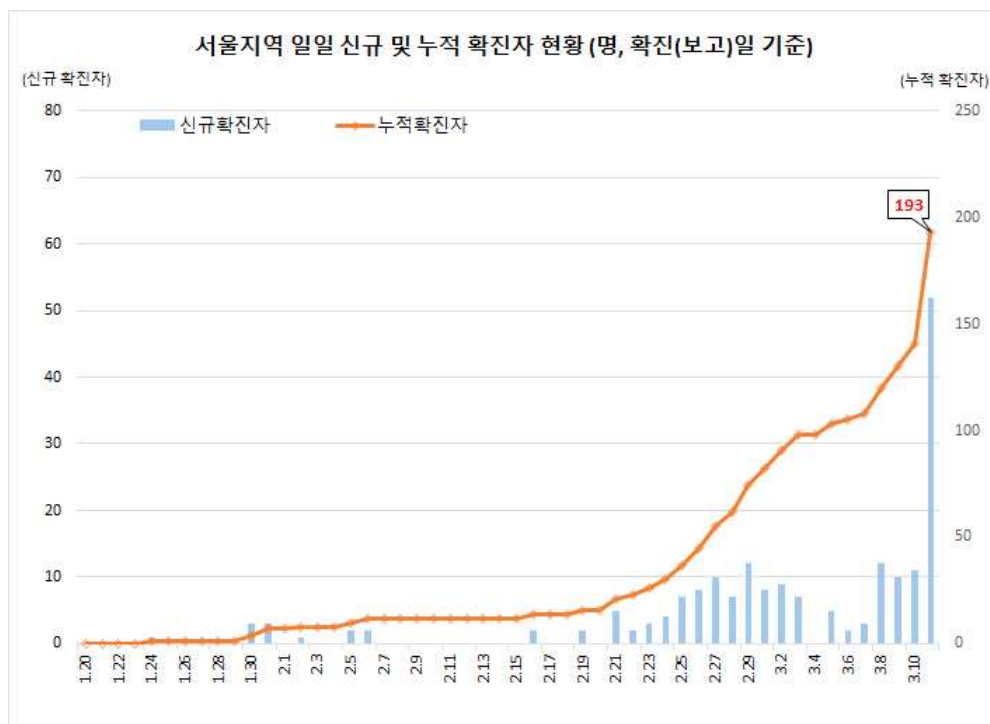


< 경기/서울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경기지역
확진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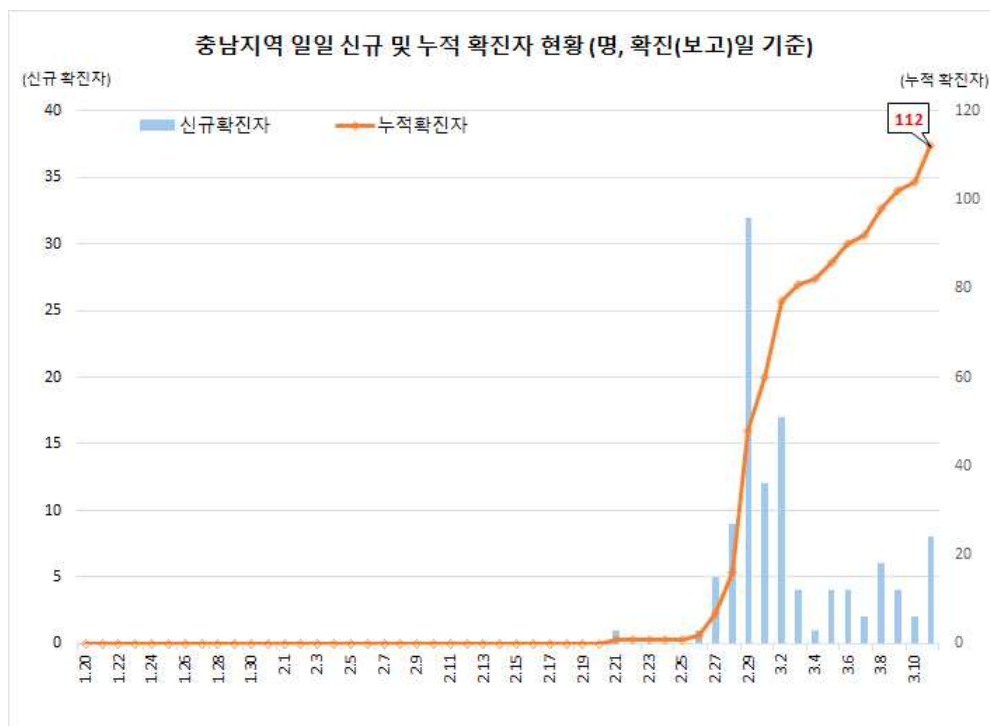


서울지역
확진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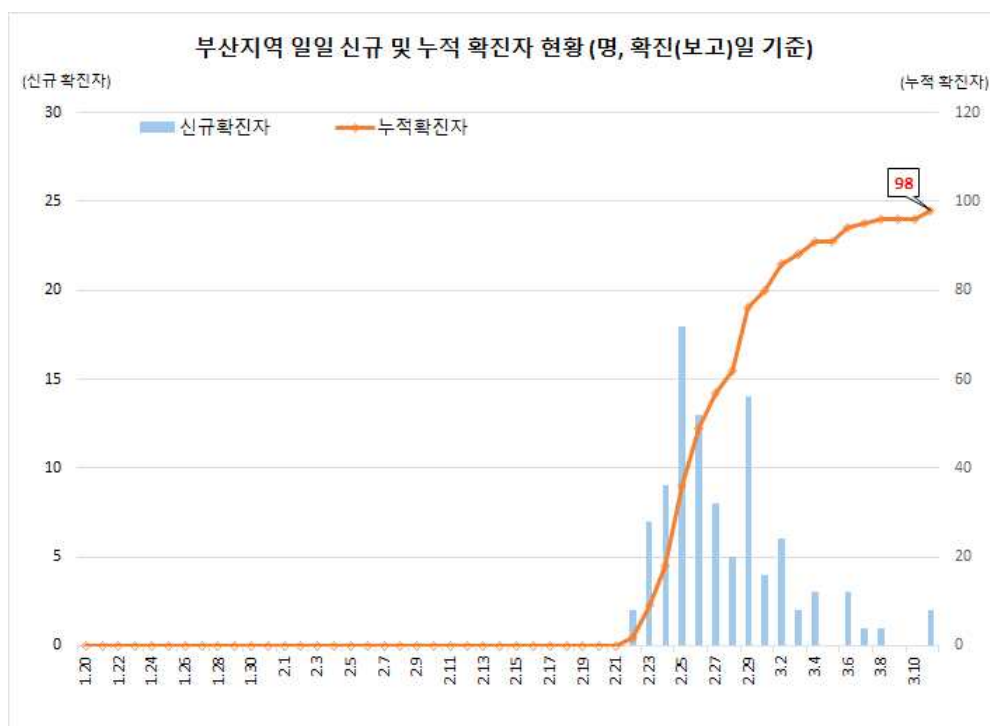


< 충남/부산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충남지역
확진자 현황



부산지역
확진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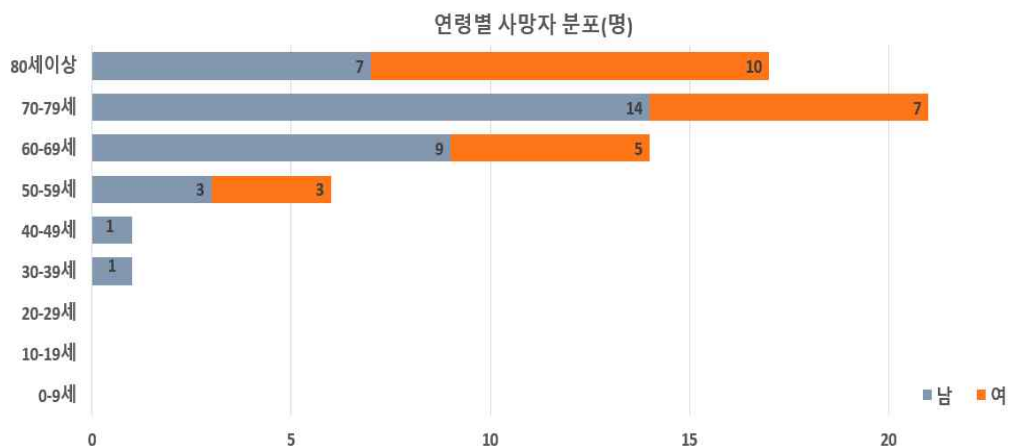
③ 확진자 성별, 연령별 현황 (3.11일 0시 기준, 7,755명)

구 분		확진자 (%)	사망 (%)	치명률(%)
계		7,755 (100.0)	60 (100.0)	0.77
성별	남성	2,947 (38.0)	35 (64.8)	1.19
	여성	4,808 (62.0)	25 (46.3)	0.52
연령	80세 이상	236 (3.0)	17 (28.3)	7.20
	70-79	483 (6.2)	21 (35.0)	4.35
	60-69	960 (12.4)	14 (23.3)	1.46
	50-59	1,472 (19.0)	6 (10.0)	0.41
	40-49	1,082 (14.0)	1 (1.7)	0.09
	30-39	804 (10.4)	1 (1.7)	0.12
	20-29	2,238 (28.9)	0 (0.0)	-
	10-19	405 (5.2)	0 (0.0)	-
	0-9	75 (1.0)	0 (0.0)	-

<확진자 분포>



<사망자 분포>



붙임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환자 발생 500명 이상 국가 지난 1주간 발생 동향

	3.4일	3.5일	3.6일	3.7일	3.8일	3.9일	3.10일	누적 사망자수
중국	80,270명	80,409명	80,552명	80,651명	80,695명	80,725명	80,754명	(3,136명)
이탈리아	2,263명	3,087명	3,858명	4,636명	5,883명	7,375명	9,172명	(463명)
이란	2,336명	2,922명	3,513명	4,747명	5,823명	6,566명	7,161명	(237명)
프랑스	212명	212명	377명	613명	949명	1,126명	1,191명	(21명)
독일	196명	240명	400명	639명	795명	847명	1,139명	(2명)
스페인	114명	151명	200명	374명	374명	589명	1,024명	(16명)
미국	108명	142명	158명	213명	436명	537명	605명	(22명)
일본	284명	317명	349명	408명	455명	488명	514명	(9명)
총 국가 수	75개국	79개국	83개국	87개국	91개국	96개국	99개국	
총 환자 수	87,389명	89,258명	91,429명	94,978명	98,396명	101,780명	105,687명	
총 사망자 수	3,170명	3,246명	3,339명	3,436명	3,541명	3,758명	3,939명	

* (출처) 각 국 보건당국, WHO, 美 존스홉킨스大(미국) 통계 자료

* 국가별 발생 통계는 코로나19 홈페이지(<http://ncov.mohw.go.kr>) 참조

□ 지역감염(local transmission) 분류 국가 ※ 출처: WHO 상황보고서(3.9)

○ 총 58개 국가/영토/지역

- 대한민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레바논, 루마니아, 말레이시아, 몰디브, 미국, 바레인, 방글라데시, 베트남, 벨기에,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브라질, 산마리노,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알제리, 에콰도르, 영국, 오스트리아,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이탈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체코, 칠레, 카메룬, 캄보디아, 캐나다,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태국, 팔레스타인, 페루,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필리핀, 헝가리, 호주

붙임3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 한국기자협회 「코로나19 보도 준칙」 (2020.2.21.)

- 다음은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제정한 「코로나19 보도 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 코로나19를 취재 및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회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합니다.

2.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입니다. 보도 및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식품 종류, 문화, 주민·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 '○○페렴' 등의 사용은 국가·종교·민족 등 특정 집단을 향한 오해나 역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보도 및 방송을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참조 :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신문윤리실천요강 관련 조항

2020년 2월 21일

한 국 기 자 협 회

붙임4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일반국민]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 :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